

영양군, 폐교 관리소홀 ‘태만’ “문화체험관 등 적극 활용해야”

자치 현장

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 등 방치
휴가 방블케해 주민들 민원 봇물
군 차원서도 활용 방안 마련해야



폐교된 옛 신사초등학교.

영양군내 대다수 폐교가 관리소홀로
휴물로 방치되고 있다. 일부 폐교는 청
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2차 문
제를 유발하고 있다.

22일 영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군내
폐교는 10곳에 달한다. 이중 옛 송하초
1곳을 제외하고는 방치, 혹은 임대 된
상태다. 그간 일부 폐교를 둘러싸고 영
양교육지원청, 해당학교 동창회, 설립
자 후손,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간의
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. 대부분의 갈
등 원인은 재산권 혹은 폐교소유권 때
문이다.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교는 ▲
쓰레기투기 등 환경오염 ▲관리에 따
른 예산낭비 ▲청소년 탈선장소로 악
용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임대가 된 폐교도 사정은 마찬가지
다. 옛 신사초의 경우 운동장 주변으로
흘러든 폐수가 웅덩이를 만들면서 파
리나 모기 등 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
다. 제조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무성하

게 자란 풀들과 조경수들과 뒤엉키면
서 휴가를 방블케 해 지역주민의 민원
이 끊이지 않았다.

이에 대해 영양교육지원청은 “대부
분 폐교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구상하
고 있는 것과 차이가 발생해 폐교 이용
을 꺼리고 있다. 따라서 폐교는 지자체
에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으로
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밝혔다.

영양군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
다. 직선도로가 거의 없다. 구불구불
도로에는 주민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
히 남아 있다. 다른 지자체의 문화 콘텐
츠를 그대로 따라하면 실패의 늪에 빠
져 버리기 십상이다. 영양군에서만 보

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
개발이 시급한 이유다. 지역공동체의
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거 학교의
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활
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. 마을도서관과
역사관, 지역 박물관, 문화예술체험관,
농촌생활체험관, 귀농예정자들을 위한
인큐베이터 공간 등이 필요한 것이다.

영양교육지원청도 지자체만 바라보
지 말고 독자적으로 폐교활용에 대해 고
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. 보다 멀
리보고 영양만의 것을 만들려는 노력을
기울여야 한다. 폐교가 새로운 모습으
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한다.

/영양(경북)=김태우 기자 ktu3987@metroseoul.co.kr

경북소프트웨어고 내년 개교 예정

경북 첫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교

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소
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(가칭) ‘경
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’가 2021년 3월
문을 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.

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의성군
봉양면에 위치하고 있는 봉양정보고등
학교가 2017년 교육부로부터 거점 특
성화고등학교로 승인을 받아 경북에서
처음으로 문을 여는 소프트웨어 특성
화 고등학교이다.

학과 모집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40
명, 게임개발과 20명, 사물인터넷과 20
명 총 80명으로 전국 단위로 모집할 예
정이다. ▲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스마트
기기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
어를 설계, 개발, 운영하는 개발자 양
성 ▲게임개발과는 게임을 기획·디자
인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양성 ▲



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(가칭) 조감도.

사물인터넷과는 냉장고, TV 등 지능화
된 사물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서비
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
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재
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전교생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
사와 다목적 강당, 클라우드 서버실,
코딩 전용실, 정보자료실, 모둠학습실
등을 갖춘 실습동을 새롭게 신축한다.

/경북=문봉현 기자 newsmun@

전남도립미술관 내년 3월 개관...6개월 연기

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
증(코로나19)의 세계적 확산으로 도립
미술관 개관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
로 연기했다.

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은 전남
을 국제예술도시로 세계에 알리고자
개관행사로 대규모 국제전을 기획했
다. 하지만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

국내의 미술관이 장기 휴관하면서 미
술관 교류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작품
대여협약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.

최근 전문가 회의에서 작품 대여와
소장작 보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술
관 준공 후 6개월 내외의 안정화 과정
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
향을 미쳤다.

전남도는 도립미술관 개관을 올해
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고 개관까
지 전시·운영 분야의 역량을 비롯해 국
내외 미술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개
관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
계획이다. 개관 기획전시로 ‘남도 거장
과 해외 거장의 비교전시’와 함께 ‘남
도미술 중심 현대미술전’, ‘4차 산업혁
명시대 뉴미디어전’ 등을 선보이고 국
제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

/전남=양수영 기자 ysn6313@



빛으로 물든 광주시청사 소나무 숲

광주광역시 22일 시민에게 야간 휴식공간 조성
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청사 전면 소나무 숲에 야
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. 경관조명은 야간에도 소나무의 푸르름과 자연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
입체감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빛을 바닥면에서 상향 투과하는 방식으로 연출했다. /광주광역시

쿠광, 대구시와 손잡고 지역 업체 기획전

쿠광이 최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
겪는 대구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대구시
와 협력한다. 지난 4월 ‘힘내요 대한민
국’ 1차 기획전에서 대구 지역 업체의 매
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12% 늘었
다. 쿠광은 이 성과에 힘입어 연말까지 2
차 기획전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.

이번 기획전에서는 1차 기획전보다
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할인 혜택도 더
했다. 믹스앤매치 에이프틸 리플 누비
이블 패드세트, 부케가르니 나드 샴푸 1
L + 트리트먼트 1L 선물세트, 맘으로
바삭 김말이 튀김 (냉동) 등 대구 지역

기업들의 인기 상품을 최대 64% 할인된
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. 즉시 할인 혜
택은 대구시의 지원으로 제공된다.

‘힘내요 대한민국’은 지역 상생을 위
해 쿠광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기획전
이다. 쿠광은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
매입하고,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
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을 포함한 마케팅도
지원한다. 지난 4월 7일부터 30일
까지 진행된 ‘힘내요 대한민국’ 1차 기
획전에서는 대구 기업의 매출이 전년
동기 대비 평균 112% 성장하는 성과를
거뒀다. /신원선 기자 tree6834@

예천군, 1.2만건 농지원부 일제 정비

예천군은 농지 현황, 농지 소유·이용
관계 등을 기록·관리하고 농지관리 및
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
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.

군은 등록된 1만2300건 농지원부에

대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정비한다고
22일 밝혔다. 올해는 11월까지 80세 이
상 고령농가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
총 9300필지 경작 현황을 중점적으로
정비할 계획이다.

정비 절차는 읍·면에서 보유하고 있
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, 농업경영체
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자료와 비교·
분석해 농지 소유·임대차 정보를 현행
화한다.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등
이 확인될 경우 9월부터 진행되는 농지
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
점검할 예정이다. /경북=문봉현 기자

안성종합사회복지관

여가·문화 수강생 모집

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신종 코로나
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장기화로
지친 지역주민들의 힐링을 위해 어르
신 즐거움, 꽃피는 평생교실, 방과 후 마
음학교 수강생을 7월 둘째 주까지 모집
한다. 이번 수강생은 ▲어르신 즐거움은 60
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
사군자 2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▲꽃피는
평생교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코이
클럽,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플라워
아트, 하모니카, 가족오락관 총 4가지 프
로그램이 운영된다. /안성(경기)=이보현 기자

장성군 “농작물 재해보험료 85% 지원”

장성군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
지원한다.

22일 군에 따르면 호우, 폭염, 태풍
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
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성군이 추진
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올해 예상 사
업량은 1800ha 규모다. 보험료 지원 규
모는 군비로 5%를 인상해 총 85%를
지원 중이다. 유기농 인증 농가는 보험
료 전액을 지원한다.

이달 중순까지 사과, 배, 단감, 원예
시설 등 1113ha 규모 1473농가가 가입
했다.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

하다. 벼에 대한 가입 신청은 오는 26일
까지며, 콩은 7월 17일까지 받는다. 양
파와 마늘은 10~11월, 포도, 복숭아는
11월에 접수할 수 있다. 원예 시설은
11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.

군 관계자는 “벼에 대한 농작물재
보험 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해, 읍면 단
위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”면서 많
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했다.

장성군은 지난해 1656농가 1704ha 규
모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, 이
가운데 805농가가 43억 1900만원 규모의
혜택을 입었다. /전남=김태우 기자 ts7080@

오늘의 날씨

6월 23일(화)
음력 : 5월 3일

수도권 날씨
31 ~ 22°C

운동 지수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빨래 지수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세차 지수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외출 지수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
연천 20/31, 동두천 20/32, 가평 20/33, 파주 20/31, 서울 22/31, 양평 21/32, 인천 21/27, 수원 22/31, 용인 22/31, 평택 20/31, 백령도 18/23

자료제공: Kweather 케이웨더(주) www.kweather.co.kr